

雪門

불기 2557년
봄호
통권 제124호
雪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운문』통권 123(겨울)호를 읽고-

- ❶ 처녀작을 내놓은부장스님! 근념하셨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밝은 웃음 잃지 않는부장스님이 되길 기도하며 124봄호도 기대합니다. / 대교과 명과
- ❷ 현대사회에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고찰은 안락사의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 대교과 정원
- ❸ 보일러 온도를 최대로 높여 보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지만, 겨울호에 실린 어른스님의 편지글과 노스님 탐방이 전해주는 훈훈함에 따뜻하게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 / 대교과 선학
- ❹ 할박눈이 쏟아진 표지 설경이 생생함과 차분함을 모두 담고 있어서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울호 곳곳에 주제 주제마다信心이 묻어나는 코너가 많아서 발심과 정진을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봉지향의 진솔한 내용이 좋았습니다. / 사교과 원담
- ❺ 얼핏 힘들어 보이고 불평하는 듯 보이는 치문·사집 스님들이었는데 모두 가슴속에 보석 같은 마음들이 있음을 운문지를 읽으며 항상 둘러켜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 언어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 사교과 제우
- ❻ 원로설정 방장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발심자로서 첫째는 신심信心, 둘째는 원력願力, 셋째는 공심公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온 부끄러운 지난날들을 회상합니다. 다가오는 새봄에는 꼭 3가지를 원願으로 삼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 사집과 주형

雲門

목차



- | | |
|-------------------|-----------------------------------|
| 02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3(겨울)호를 읽고 |
| 04 죽림현 | 소나무와의 대화 평성 |
| 06 교수논단 | 『碧岩錄』 제16칙 「鏡清畔啄」의 현대 교육적 意義 ② 영역 |
| 10 풍경소리 | 늘 고향처럼 그리운 김관주 |
|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애어설 爰語攝 서광 |
| 14 기획연재 | 푸르른 암벽 끝 Blue Cliff로부터 온 편지 운성 |
| 17 깨달음으로 가는 길 | 가릉빈가의 음성 편집부 |
| 18 특별기고 | 운문사의 사격寺格 김상영 |
| 22 담소 | 마음 꽃 전혜숙 |
| 24 자유기고 | 운문사의 몸을 담아… 김은주 |
| 26 차례법문 | 반야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돈수 |
| 28 학인논단 | 불교의 명상과 지관문止觀門 ① 정행 |
| 32 운문, 운문인 | 함께하는 전통매듭 편집부 |
| 34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소통의 키워드 진서 |
| 36 수행의 두레박 둘 | 기도는 나의 힘! 보현 |
| 38 수행의 두레박 셋 | 신新 성행당가省行堂記 주성 |
| 40 방부소감 | 이제 시작합니다 고경 |
| 42 끝없는 여정 | ‘行佛’하세요 선운 |
| 45 想 | 일장춘몽—場春夢 진옹 |
| 46 이 한 권의 책 | 맑은 바람 드는 집 현주 |
| 48 운문논평 | 물빛 맑은 배려심 갖기 편집부 |
| 50 운문소식 | |
| 51 등불 | 통권 124호, 봄호, “愛語…달” |

소나무와의 대화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운문사에는 살아계신 도량 수호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백 년 이상 이 도량을 지키며, 수많은 참배객을
말없이 환영하고 그들 기념사진에 인증이 되어주는,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 소나무(일명 : 반송, 다팔
솔)입니다. 오체투지 하듯 땅을 향해 드리운 팔들이 사방으로 고루 뻗어 있습니다. 어떤 팔은 무거워서 반
침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당당한 위엄과 푸근함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벗이며 스승입니다.

이 처진 소나무의 생신은 강남 갔던 제비, 나비가 돌아오는 삼월 삼짇날입니다. 생신파티는 물을 섞은
막걸리를 뿐만 주변에 흘어주는 간단한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축하객은 많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
작가들, 신문기자, 방송기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타를 인터뷰하듯 진행됩니다.

올해 생신에도 부처님 공양시인 사시에 맞추어 스님들이 소나무를 향해서 반야심경 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놓은 막걸리를 주위에 골고루 뿐렸습니다. 해마다 막걸리를 공양하는 시주분, 관광 온 일본
인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성이던 엄마도 한 바가지씩 공양을 올렸습니다.

막 동이 튼 이른 아침, 회뿌연 안개가 피어나는 시간에 나는 포행을 합니다. 학인들은 다 수업을 들어가고,
참배객도 들어오지 않아서 도량은 신비하게 고요합니다. 이러한 때 소나무 앞에 다가서 여쭤 봅니다.

“하늘은 저리도 파랗고, 결릴 것이라고는 없는데, 왜 팔은 땅으로 떨구고 계신가요? 연세가 높아 팔도
아프실 텐데…….”

그러면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팔을 아래로 드리우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6·25 때 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으며, 온 산하의 소나무
를 병들게 하던 70년대 혹파리 피해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네.”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으셨나요?”

“나는 오래전 이와 같은 경구를 들었네.”

달은

수줍음을 타는 듯

자주 구름 속에 숨는다.

초발심의 수행자도

달처럼 수줍어하며 하심하라.

깊은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이

군중 속을 들어갈 때도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라.

자기 를 높여 뽐내지 말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 잡아함경 雜阿含經 -

『碧巖錄』 제16칙 「鏡清障啄」의 현대 교육적意義 ②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프롤로그 / 禪師와 도독
- II. 「鏡清障啄」의 현대 교육적 의미
 - 1. 「鏡清障啄」의 이해 듣기
 - 2. 선문답의 요점은 해체와 속도
 - 3. 교육의 목표와 불교 교육의 이상향
 - 4. 현대 교육 방법과 「鏡清障啄」의 교육적 의미
- III. 에필로그/ 역설(para-doxa)적 선문답

참고문헌

2. 선문답의 요점은 해체와 속도

『碧巖錄』의 本則들은 ‘묻고 답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기실 그것은 물음을 위한 것도 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답들은 언제나 ‘물음을 막아버리기 위한 수단’ 일 뿐 궁극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선문답들은 질문 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모든 의미작용을 일거에 해체해 버리는 도구일 따름이다.¹⁾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으려는 자에게

는 그 부처마저도 죽여 버리라고 말한다. 말을 통해 부처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결국 말에 얹혀 자기 사유의 길마저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선문답에서는 말해지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해진 순간 이미 말해진 것을 버려야 하니, 일체의 상식과 양식과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선문답의 언어들은 格外句다. 그것은 ‘틀 밖의 말’로 학인의 입을 막아버리고, 개념과 인식으로 무장된 질문자들을 ‘단번에’ ‘무장 해제’ 시켜 버린다. 선승들은 질문에 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부수기 위하여 답을 한다. 답을 찾기 위해 질문 자체에 매달리는 한, 한 걸음도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건은 항상 사유하는 자의 등 뒤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질문에 매달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음알이를 내어 판단하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인식의 짹을 잘라버리는 페에 있다. 이러한 선문답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속도이다. 電光石火 속에서 黑白을 구별하고, 번뜩이는 번갯불 속에서 殺, 活을 알아차려야 한다. 시방의 논란을 꽉 틀어쥐고 천 길 벼랑처럼 우뚝 서기도 하지만, 때론 만 길 벼랑에서 한 손을 가차없이 놓아 身命을 돌아보지 않을 때[懸崖撒手], 주인이 될 수 있다. 방편에 걸려 머뭇거리다가는 목숨을 잃고 만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니, 번갯불이 번쩍하는 찰나에 모든 방향을 궁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체나 대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문답이다.

3. 교육의 목표와 불교교육의 이상향

『碧巖錄』 16則 「鏡清障啄」의 현대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조건 등을 살펴보자.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가 문화 창달과 보존 및 지식을 발전시키는 페 있엇다면, 현대 교육의 지향점은 개인의 창의력을 확장시키고 내면적인 자아를 보다 깊이 인식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줄 알게 하고 부단히 스

스로 배워 나가도록 격려하는 데에 있다.²⁾ 즉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충분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불교의 대승 보살도 정신에 있어서 自利利他 사상과 유사함이 있다. 여기에서 불교 교육의 理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戲論을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일깨워 주는 교육, 둘째 우주의 모든 존재와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 不二의 각각에서 오는 慈悲의 실천 교육, 셋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心性 계발 교육, 넷째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교육, 이상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³⁾ 즉, 불교 교육의 이상은 지혜와 평등 그리고 자비, 자유, 주체적 자아완성의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교육의 이상적인 목적인 창의력 확장과 주체적 자아인식, 평등, 사랑, 부단한 배움과 인격완성과도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변화인데 이 요소란 각각의 개인이며, 개인의 변화가 바로 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때 사회전체와 구성원들 사이에 유기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는 결국,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계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라고 하겠다.⁴⁾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실현은 鏡清 화상의 噎啄同時에서 보여주는 최종 목표와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출탁동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자아실현인 '깨달음(悟, 省, 覺)'에 도달하게 하는 교육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먼저 '피동과 능동'의 문제가 교육의 조건이 된다. 심리학자 Gordon Allport는 인간을 세 가지 개념으로 보는데,⁵⁾ 첫째 윗손과 스키너로 대표되는 자극-반응 심리학(Stimulus-Response Psychology)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하나의 물체나 생물학적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프로이드를 대표로 하는 심층심리학의 견해로서, 인간은 심층심리 속의 리비도, 충동, 죽음, 공격충동과 같은 내면적 충동을 통해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더하여 올포트는 인간을 형성과정에 있는 존재(a being in the process of being)라고 보았는데, 그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견해들 속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자극과 반응이며, 또한 인간은 '피동체임과 동시에 능동적 주체'라는 점⁶⁾이다. 즉 교육에 있어서 자발성과 수동성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자발성과 수동성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선사와 납자의 雲水行脚이나 法거량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사제 간의 만남'을 말한다.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啄)과 어미닭이 이에 맞추어 밖에서 쪼아 주는 것(啄)이 바로 사제 간의 극적인 '만남(Encounter)'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은 어미닭에게 있다. 왜냐하면 어미닭에게는 이미 선형적 체험을 통해 격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마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전공의 지평과 풍부한 경험과 사유 그

1) 채운 : 들뢰즈로 벽암록 읽기, 미술사 전공.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저서로 〈호모 아르텍스〉가 있다. © 불교평론(<http://www.budreview.com>)

2) C.H. 패터슨, 장상호 역, 「인간주의 교육」, (전영사, 1992), pp.37-39. 참조.

3)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p.308 참조.

4) C.H. 패터슨, 앞의 책, p.40.

5) 위의 책, pp.96~97.

6) 위의 책, p.95.

리고 따뜻한 인간애와 함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스승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이다.

4. 현대 교육 방법과 「鏡清 啓啄」의 교육적 의미

현대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패터슨은 주장한다.⁷⁾ 그것은 경청과 반응, 한계설정인데, 傾聽은 단순히 귀 기울여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共感을 포함해야 한다. 제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을 바탕으로해서, 반응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반응도 단순한 대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교육적 방법으로의 반응을 말한다. 반응은 보다 완전하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즉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한 교사의 반응이 학생 자신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교육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계설정은 통제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촉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碧巖錄』 제16칙의 鏡清 啓啄의 내용도 스승의 반응이 중요한 교육의 도구가 됨을 보여준다. 경청 스님과 학인스님의 대화 내용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역시 형편없는 놈이로군.” 하는 구절들은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해주는 ‘반응’이 된다. 또한 벽암록에서 한 학인스님과 남원 스님께서 문답을 하다가 갑자기 봉동이로 내리쳤으나, 수긍하지 않자 학인을 쫓아내 버렸다는 구절은 한계설정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禪語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무수히 만날 수 있다.

『碧巖錄』에서 “어미닭이 쪼고 병아리가 쪼면 화상의 경지는 어떠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좋은 소식이다.”라고 대답하여 스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병아리가 쪼고 어미닭이 쪼 때 학인의 경지는 어떠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本來面目이 드러나지.” 하는

말로써 자기완성에 있어서 학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간파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同時’이다. 부리와 부리가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이 실현’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스승과 제자의 ‘적절한 교육적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극과 반응의 관계, 그리고 피동과 수동의 관계, 그리고 사제 간의 관계 등은 반드시 배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반응과 수용으로, 연령이 높든 낮든, 각자의 현 상태에 맞춘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적절한 시기’의 최종단계인 ‘동시성’이 이루어질 때 교육 본래 목적인 ‘자기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승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며 그리고 교육의 조건과 그 내용이 깊은 경지에서 진행될 때 궁극적인 교육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장벽이 없는 사제 간의 만남이 최고의 교육적 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끝으로 본 小考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鏡清和尚의 「啓啄同時」를 통한 현대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탁동시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는 무엇보다 피교육자의 적성과 관심분야 및 수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자는 일방적인 교육보다 상호 작용에 의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피교육자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육자는 피교육자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방과 할 같은 강한 자극 외에도, 다양한 방편력을 갖추어 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자는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피교육자가 일정수준에 오르기 전에 억지로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 마치 묘목을 빨리 키우려고, 뿌리째 뽑아 올리면 끝내 죽고 미는 이치와 같다. 결론적으로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며,

내재된 능력이 꽂힐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호 교류의 양방향 교육을 위하여 교육자 스스로 열린 안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적 교육 관점에서 본 ‘**唯時**’는 가르치고 배우는 두 사람의 대화가 동시에 응하여 두 존재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연의 고리이며, 최상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학습장소이다. 그 가운데 눈뜬 자와 눈뜨려는 자의 치열한 求道 체험을 통한 자기완성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III. 에필로그/ 역설(para-doxa)적 선문답

일반적으로 질문과 대답은 이원론을 전제한다. 질문이란 대개 이미 가능한 답변을 염두에 두고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역설(para-doxa)은 상식과 통념을 뒤집어 버린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시에’ 여러 방향의 의미를 가능케 해주는 일종의 ‘무의미’이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언제나 다른 식으로, 다른 지평에서 대답하는 선문답처럼. 선문답의 역설은 이것과 저것 모두를 궁정하는 것도, 혹은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역설은 전체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도하며 어떤 의미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으므로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보순’은 언어의 대립을 통해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지만, 역설은 삶의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간절하게 그리고 몸소 얻고자 한다면 말을 가지고 묻지 말라.’는 뜻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선문답의 목표는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실체화하고 언어로 표상화된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일대사인연의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언어라는 방편이 필요하다.

현대 교육에서 교과공부보다 부족한 점이 사색과 근원적 물음에 대한 내면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 속에는 존재의 사색과 근원적 주체에 대한 물음이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교과공부의 패러다임은 일종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이것만으로는 교육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선에서 주창하고 있는 마음공부를 산사에서 세속의 세계로 이끌어 오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⁸⁾ 선을 통해 교과공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 존재와 주체의 문제를 복원해 낼 수 있을 때 현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존재의 본질적 삶에 대한 눈뜸과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碧岩錄』 제16칙 「鏡清唯時」
- 『祖堂集』 10권◎ 불교평론(<http://www.budreview.com>)
- C.H. 패터슨, 장상호 역, 『인간주의 교육』, (전영사, 1992).
-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서명석, 『禪 신비로움 벗어나 일상화-보편화』

* 123(겨울)호 교수논단 p.9 마지막 둘째줄 ‘**唯唱**’을 ‘**評唱**’으로 정정합니다.

7) 앞의 책, p.175.

8) 서명석, 『禪 신비로움 벗어나 일상화-보편화』, 외국어대 강사, 교육학전공.

늘 고향처럼 그리운

김관주 / 꿈나무어린이집 원장

늘 고향처럼 그리운 이상복 교수님, 오늘이 벌써 교수님 떠나신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생전에 함께 기뻐하며 웃은 시간보다 못 오게 아니하신 49일 간의 시간이 더 애틋했습니다. 교수님 생전 같으면 저희가 아무리 원한다 한들 차려드릴 수도 없는, 상상도 염두도 못 낼 참으로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의식이 운문사에서 오늘로 일곱 번째 열립니다. 교수님께서도 황망히 먼 길 떠나시어 작별인사 못하고 가신 것 미안하셨지요? 대평리를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을 억지로 돌려세우시고 건강 찾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하시고는 미안한 마음에 많이 불편해하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주고 차비 쥐어주며 모두 만나겠노라 다짐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어디에 가야 교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조금이라도 멀 서운한 이별을 준비하시려고 전화도 만남도 인연도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남아 있는 저희들은 힘든 고통을 함께 나눠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미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의 극락왕생을 간절함으로 기도해 온 저희가 슬픈 마음으로 또다시 한 자리에 모였고 운문사의 아름다운 비구니 스님들이 화려하고도 정갈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청아한 목소리로 경을 읽으며 정성으로 제사를 반드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들으시고 모두의 사랑 속에서 이번 생과 이별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섬세한 감성으로 대평리의 하늘과 바람, 구름, 나무, 꽃, 별들, 새들의 노래까지도 유난히 사랑하신 교수님! 그토록 자연을 닮고 싶어 하셨고 자연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던 교수님! 전설처럼 교수님의 바람대로 수목장을 하여 운문사 뜰 다실 가까이 고운 나무 밑에 자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의 길지 않은 여정을 돌아보니 남은 저희에게는 기쁨보다 아픔이 더 크게 남아 가슴이 아립니다. 평생 한길 걸어오신 학문이었던 궁정행동학, 정서행동장애전공 어른으로서의 자리, 연구실과 교수라는 지위와 책임, 연구소, 대형 프로젝트들, 사술처럼 혼자 짊어지고 오셨던 무한 책임의 그 벼거운 시간과 무게들에 비하면 교수님 정년 후에 누리신 풍요와 여유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60년을 기다려 겨우 진짜 엄마를 만나셨는데 기적 같은 행복의 시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세 살에 엄마를 잃은 교수님의 인생에 ‘엄마’ 하고 부르면 대답해주고 떼만 쓰면 다 해주는 진짜 엄마로 일진 스님이 와주셔서 그 자리를 지켜 주셨음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만남으로 스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교수님을 훌가분한 마음으로 감히 놓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암의 고통을 이겨내실 때에도 결에서 지켜주신 엄마-스님이 계셔서 마음 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불러볼 수 있었던 엄마-스님을 만나 평생의 결핍이 치유된 후에 이생을 떠날 수 있었



음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기적 같은 인연을 예비하신 교수님의 선업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행자처럼 감정마저도 절제하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단호하셨던 교수님! 나눔은 좋아하셨으나 받는 건 인색하셨던 교수님!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자란다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큰 스승으로 언덕으로 계셔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진실을 살아생전 고스란히 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참회합니다.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긍정 잊지 않으신 교수님! 누구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었던 아픔과 감히 누구도 상상 못 할 외로움과 그리움들 이제는 다 잊고 다 용서하십시오. 부족한 저희도 용서해주십시오. 교수님이 가지신 역량과 삶을 향한 도전의 자세와 열정은 저희에겐 늘 흥내 못낼 높은 산이었습니다. ‘종착점이 오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에게 몸소 가르치셨고 요청하셨으나 저희가 나타하고 어리석어 그 열정 제대로 못 받쳐드려 늘 송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가 교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경계 없는 마음 더 크게 더 넓게 쓰며, 더 많이 나누고, 인연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더 잘 존중하고 섬기겠습니다. 더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실천하며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존재하는 날까지 교수님의 삶은 영원히 오롯이 기억될 것입니다. 보름날 오시고 보름날 떠나신 우리 교수님. 교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등근달로 떠오르십시오. 바람 사이로 구름 사이로 별빛으로 언제나 저희에게 오십시오. 교수님의 자서전 『청춘의 위로와 긍정』에서 밝히신 생전의 뜻 그대로 교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나눠주신 더 없이 귀한 모든 손길들과 은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운문사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수님! 어느 하늘 어느 땅에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에도 교수님의 제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큰 스승으로 다시 만나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이생에서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고통 없는 평안한 곳으로 편히 가십시오.

2013년 4월 13일 49재날
그리움마저도 축복으로 안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김관주 올림

애어섭愛語攝

서광 / 윤문사승가대학 강사

애어섭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4가지 행동덕목, 즉 보시섭布施攝, 애어섭愛語攝, 이행섭利行攝, 동사섭同事攝의 사섭법四攝法 가운데 하나다.

애어섭은 보살이 온화한 모습과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담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부드러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기쁘게 하며,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가슴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워준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거친 마음을 치유하고 편안하게 머물도록 만들도록 모모로써 모든 인간관계를 소통시키고 선善한 심리상태를 유발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자에게 내재된 고귀하고 성스러운 불성, 즉 자신의 본질과 만나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4가지 서원 가운데 첫 번째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다 견지오리다. -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道”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애어섭은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스러운 말의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사섭법의 나머지 3가지 행동덕목, 즉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보시섭), 상대를 이익되게 하려는 행위(이행섭), 상대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동사섭)이 고스란히 함께 녹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속에 진실한 몸의 행위와 뜻이 담겨서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마음의 심충으로부터 조화롭게 우러나오게 되고, 고통받는 이를 온전하게 위로하고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애어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과 뜻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애어는 진정한 애어가 아니라 아첨이나 구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어섭을 실천하는 일차적 목적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중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애어섭은 심리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기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애어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 갈등을 해소시키고, 깊은 경청과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나 삶의 고통을 보다 완전하게 해결함으로써, 일시적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갈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중상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화, 무지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 즉 불성을 만나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애어섭은 단순한 사랑의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살의 길에 들어선 우리 불자들의 마음치유는 일반 심리치료와는 달리 단순한 고통이나 중상의

제거에서 끝나지 않고, 고통을 깨달음의 거름으로 만들어서 우리 내면에 잠재된 불성과 만나는 수단과 방편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삶을 선택한 우리 불자들이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중생을 살어나르는 수단으로 에어섭을 실천할 때, 반드시 삼가야 할 항목들이 있다. 말로 써 짓는 4가지 악행으로 악구惡口(악담), 양설兩舌(이간질), 기어綺語(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거짓말), 망어妄語(망령된 말)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치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제 치유라는 말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나머지 아예 치유라는 번역어 대신 힐링Healing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만큼 치유의 방법이나 목적도 다양해지고, 치유자의 자격이나 능력, 조건도 제각각이다. 그런데 치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에어섭만큼 훌륭하고 완벽한 방법이나 기법은 없다. 왜냐하면, 에어섭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무수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치료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일에 사람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의 여부는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서 의미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돋고 치료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진실로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치료자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자비심이 풍부한지, 치료자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거나 평가하는 일에는 특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에서 치유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하고 특별한 자격이나 훈련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라면 인간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 심리치료에서 치료의 효과, 중생교화의 근본능력은 보살/치유자가 얼마만큼 자기Ego,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는데, 불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은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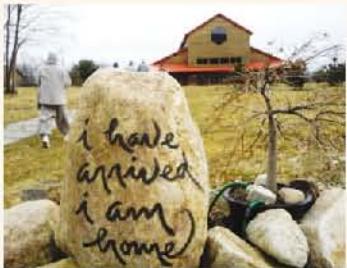
‘팔만사천법문’이라는 말처럼 불교는 사실 수단과 방편이 너무 넘치고 많아서 웬만큼 마음을 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다. 더러는 자신이 깨달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그만큼 수행이나 치유기법은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하다. 어떤 가르침들은 많은 공부와 수행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전지식 없이 누구나 그냥 곧장 실천수행으로 옮겨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수행법이 에어섭이다. 막 시작한 초보자나 고참수행자나, 수행의 도가 높은 자나 전혀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수행의 의지가 전혀 없고, 불자가 아니어도, 인간관계에서 누구든지 당장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에어섭이다.

끝으로 달라이 라마의 말을 소개하면서,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가 봄의 햇살에 녹듯, 온갖 삶의 고통과 힘겨움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의 말로 녹이며 올봄은 그렇게 맞이하면 어떨까 싶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뇌에 지식을 채워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며 인간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심을 채워넣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사랑과 자비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그것이 없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푸르른 암벽 끝 Blue Cliff로부터 온 편지

윤성 / 윤문사승가대학 42회 동문,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



틱낫한 스님 친필 'I have arrived I am home'



다 함께 어우러진 순간

great harmony

서구인들은 불교는 잘 모른다면서도,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 얘기를 하면 얼른 “Oh, I like his teaching.”이라는 대답을 보내온다.

뉴욕에서 1시간 30여 분 근교 Pine Bush, Green Hudson Valley에 위치한 블루클리프 승가공동체(Blue Cliff Monastery)는, 베트남전쟁 이후 공산정권의 탄압으로 프랑스로 망명한 틱낫한 스님(1926~)이 뜻있는 스님들과 새로운 불교문화운동으로 결연한 의지를 모아 결성한 베트남 승가인 소위 접현종(Interbeing Order) 소속으로, 프랑스 플럼빌리지Plum Village(자두 마을)를 이어 2007년 전 세계에 세워진 여러 베트남 수행공동체들 중 한 곳이다. 우린 이곳에서 2박 3일의 단기 안거수행에 합류하기로 했다.

새벽 4시 기공 운동, 5시 좌선 및 예불, 경행, 7시 30분 아침공양, 그룹 수행 혹은 법문 및 토론 시간, 12시 점심공양, 개별수행 및 영어강의, 6시 저녁공양을 기본으로 매일 매주마다 방문하는 대중들의 성향과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척 인상적인 부분은 비구(사미), 비구니(사미니), 행자, 재가자가 한 도량의 다른 건물에서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향해 Sisters & Brothers라고 부르며 친형제처럼 지낸다는 점이다. 또한 15분에 한 번씩 종이 울리면 그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바로 멈추고 그대로 서서 몇 초간 마음챙김을 한 후 종이 멈추면 비로소 가던 길을 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규칙을 빼놓을 수 없겠다. 우리를 태워다주신 스님의 고마운 사전교육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정지한 그 찰나에 우리만이 열심히 땀짓(?)을 할 뿐했다.

현재 이곳에는 열아홉 분의 Sisters와 열두 분의 Brothers, 재가수행자 두 분이 계신다. 스님들의 연령층이 20대 초반 등 매우 젊은 편인 만큼 도량 전체가 마치 꽃이 편 듯 환하고 맑은 느낌에, 최근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부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구·비구니계를 받고 5년 내지 10년 간 교육을 받고 나면 법사(Dharma teacher)자격에 오르지만, 모든 공동체 안의 크고 작은 소임들은 두 명씩 팀을 이뤄 돌리고 있었고 이 규칙에는 주지 스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그 당연한 듯한 얘기 속에서 법랍이 높아질수록 권위의 장관 때가 쌓이기 쉬운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되비추어 보게 된다.

제다가 구성원 중 몇 분은 미국생활이 수십 년이라 굉장히 영어구사력으로 모든 법회 진행을 베트남어·영어로 동시통역 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갓 들어온 어린 스님들 역시 영국인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지속적으로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공동체 스님들과 만남의 시간



승복 바꿔입기 놀아-누가 한국스님인지



틱낫한 스님 법문 듣는 중 해드셋으로
베트남어를 영어로 동시통역

블루클리프와 같은 센터가 전 세계에 이미 널리 퍼져 활동 중인데, 본부 격인 프랑스 플럼밸리지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스님들을 전 세계 센터로 파견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의 베트남 승가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틱낫한 스님이 베트남불교의 현실과 현 시대적 정황에 맞게 새로이 구성 발표하신 계율문에 의지한 것으로, 비록 그들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함께 웃고 얘기하고 수행하며 우리가 느낀 것들을 어찌 몇 줄의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서로 미룰 것도 없이 자발적인 실천행과 연령과 성별이 본래 없음을 말하듯 일체의 이분법적 사고(Dualistic thinking)를 넘어서서 기꺼이 낮추고 서로를 도우는 마음 씀, 아무리 둘 뿐 방랑자라도 저절로 편안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수행방법,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지르고 돌아오는 피드백 없는 한국 법회방식과 달리 법문 시간 후에는 항상 재가자를 포함한 사부대중이 둉글게 모여앉아 서로의 법문을 들은 감회와 의문점들을 나누고 서로서로 답해주는 토의시간을 갖는 모습……. 서양인들의 사고구조를 이해하여 국제포교에 원력을 둔 스님들이라면 ‘내 것만’이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이러한 현지포교에 성공한 전례들을 잘 수용해 긍정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한다.

어린 만큼 수줍고 또 순진무구한 스님들과의 에너지 교류 속에 자꾸만 내가 더 정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던 시간들. 진리를 향한 서원의 힘이리라. 그들의 법명에 그토록 많이 쓰여진 ‘True’ 말이다. 저절로 평화!

안거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노독으로 통통 부은 두 발을 담근 뜨거운 물 속에 일렁이는 얼굴들이 있다. 눈을 감으면 울려오는 천상의 화음, 아! 블루클리프 공동체 스님들의 예불소리…….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곳에서의 하루하루 수행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하지만, 가사를 수한 스님의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조국 베트남을 향한 그리움과 아직 거기서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며 큰스님이 되시라고 축원하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가끔은 아프다며, 조용히 혼들리던 어린 사미니스님의 눈동자가 물속에서 일렁인다.

“고통과 접촉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고통 앞에서 그대의 눈을 감지 말라. 그 세계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의 존재에 대해 자각을 늦추지 말라. 개인적인 접촉이나 방문, 그림이나 소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 그런 수단들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고통의 실체에 대해 그대 자신과 타인들을 일깨우라.”

- 틱낫한 스님의 계율문 중 -



따스한 축원의 노래로 이별가를 불러주는 공동체 식구들

떠나가는 우리를 위해 일부러 방에까지 찾아와 비눗방울 놀이를 해주며 축원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던 따뜻한 배려가 몸에 밴 스님들. 지금 그들의 꿈은 그 미소만큼 참으로 소박하지만, 다가오는 그 미래는 얼마나 장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아마도 그것은 블루클리프 저 푸르른 암벽 끝, 거친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뛰어넘어 펼쳐질 광활한 저 바다를 품었을 !

“This is just it!” (공양간에 걸려 있던 틱낫한 스님의 친필 법문) ☺

*기획연재는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생 스님들의 미국불교 연수기를 네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가릉빈가의 음성

生本無生 滅本無滅 生본무생 멸본무멸
 생은 본래 생이 아니요, 멸은 본래 멸이 아닙니다.
 生滅本虛 實相常住 靈駕 還會得 無生滅底 一句麼
 생멸본허 실상상주 영가 환회득 무생멸저 일구마
 생과 멸이 본래 허망한 것이니 실상만이 항상 주하여 있습니다.
 영가시예! 여쭙건대 '무생멸'이라는 일구를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俯仰隱玄玄 視聽明歷歷 若也會得 嘴登法身 永滅飢虛 其或未然
 부왕은현현 시청명역력 약야회득 돈종법신 영멸기허 기혹미연
 땅을 살피고 하늘을 보아도 현현이 숨어있으나 보고 듣는 것은
 밟아 분명합니다. 만일 깨달으셨다면 지금 당장 법신을 중득하시어
 영원히 기허를 멀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承佛神力 仗法加持 赴此香壇 受我妙供 證悟無生
 승불신력 장법가지 장향단 수아묘공 증오무생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으시고 법의 가지력을 의지하사
 이 향단으로 오시어 나의 묘공을 받으시고
 무생법인을 깨달아 중득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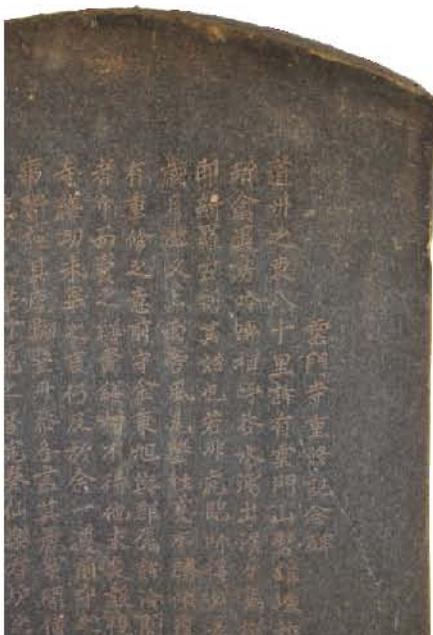
* 착어着語 : 착어란 천도의식 가운데 법주가 창훈을 한 후에 영기靈駕에게 최상의 진리 법문을 설해 주는 것이다. 착어성着語聲은 그 음성이 조용하고 장중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듯이 각 사찰은 참으로 다양한 사격寺格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격은 사찰의 역사와 현재를 두루 포괄하여 형성된 개념이므로,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청도 운문사는 한국 현대불교에서 ‘최고의 비구니 교육도량’이라는 사격을 지니고 있다. 이곳 운문사승가대학에서 배출된 스님들은 한국 비구니승가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의 발전에 있어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최고의 비구니 승가교육 도량이라는 운문사의 사격은 현대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이전 운문사는 과연 어떠한 사격을 지니고 있었을까? 필자는 운문사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 이자 ‘조계종 중심도량’으로서의 사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운문사의 역사적 위상과 사격은 최근 들어 다소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울 수 없다.

사찰에 거주하는 사부대중이나 사찰을 참배하는 대중들은 그 사찰의 사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기운이 완연한 운문사 도량을 참배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읽고 과거 운문사가 지니고 있었던 사격을 반드시 이해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참배하고 계신 이 도량이 과거 얼마나 중요한 사격을 지니고 있던 곳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도량을 참배하는 진정한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불교는 곧 선문禪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형성된 선문은 통상 9산선문으로 칭해지며, 이들 9산선문은 무려 600여 년에 달하는 전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9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



과 사굴산문은 한국의 선문을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다. 이들 두 개의 선문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뚜렷한 전승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선승 역시 대부분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출신이었다. 고려시대 조계종은 결국 이들 두 선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지산문 개산조인 도의道義 스님은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라는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가지산문은 한국 선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중심 선문으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종선을 최초로 전래한 도의 스님은 821년 귀국 이후 신라 불교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교학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불교계는 스님의 활동, 특히 경주지역에서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도의 스님이 선법을 퍼뜨려 하자 당시 승려들은 그의 교설을 ‘마구니의 말(魔語)’이나 ‘허황된 것(虛誕)’이라 비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스님은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설악산 북쪽 진전사陳田寺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스님의 법은 ‘개미 폐처럼 찾아와 기러기 폐처럼 떠나간(蟻慕者彌山 雁化者出谷)’ 그의 제자들에 의해 퍼져가기 시작하였다. 염거廉居 스님은 그의 대표적 전법제자였다. 염거는 도의에게 법을 전해 받은 이후 설악산 억성사億聖寺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열었다. 그가 언제부터 억성사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844년 입적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염거 이외에도 도의의 법을 이은 전법제자는 상당수에 달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의 법명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도의 스님의 법은 염거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갔다. 특히 억성사로 그를 찾아와 법을 전해 받았던 보조선사 체징普照禪師 體澄(804~880)은 가지산문을 확립한 실질적 개산조로 평가된다. 체징은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후 억성사에 있는 염거를 찾아가 그의 법을 이었다. 체징은 목숨을 자기의 목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몸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정진하였으며, 염거는 체징의 뜻과 기개에 착할 만한 이가 없고 그 타고난 바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법을 전해주었다. 처음 진전사에서 시작된 도의의 선법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억성사와 가지산사(지금의 장흥 보림사)로 확산되어갔다. 특히 체징의 가지산사 주석은 가지산문이라는 선문의 이름과 가지산문의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일이었다.

진전사는 가지산문 존속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억성사·가지산사, 고려 중 후기의 운문사·인각사 등은 해당 시기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삼국유사』의 내용에 의하면 운문사는 이미 937년(태조 20)부터 선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 중기까지의 운문사 역사는 뚜렷하게 전하는 내용이 없다. 운문사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크게 부각하게 된 계기는 원옹국사 학일圓應國師 學一(1052~1144) 스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학일 스님의 생애는 지금 운문사 경내에 세워져 있는 스님의 비문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학일 스님은 11세 때 진장眞藏 스님에게 나아가 출가하여 13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 1084년(선종 2) 광명사에서 개최된 승과고시에 나아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스님은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의천의 합류 요청을 거부하며 선 수행에 전념하였다. 스님의 비문에 실려 있는 내용, 즉 “대각국사가 송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의 교의를 전해 왔으며, 아울러 천태교관을 배워 왔다. 철종 원우元祐 원년(1086) 병인에 돌아왔는데, 지자대사를 존숭하여 별도로 종기를 세웠다. 이때에 충림 납자 가운데 천태종

으로 편입 된 자가 10에 6~7이나 되었다. 학일 스님은 조도祖道가 쇠퇴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홀로 서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하였으며, 몸으로라도 그 임무를 삼고자 하였다. 대각국사가 사람을 보내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끝내 그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천태종 개창에 대한 스님의 반감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 특히 학일 스님은 당시 선승 가운데 6~7할이 천태종으로 개종하는 현실을 개탄하였으며, 자신만이라도 ‘조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였다.

천태종 가담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스님은 숙종의 왕자인 원명국사 정엄圓明國師 澄儼이 9세 때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되자 법력으로 그를 소생시켜 준 적이 있었다. 스님은 이 일을 계기로 숙종-인종 연간에 걸쳐 대대로 왕실의 존숭을 받는 불교계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대선사의 승계(1114년)를 받고, 안화사(1117년) 주지를 지내던 스님은 예종으로부터 왕사가 되어달라는 청을 받았으나 정중히 사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예종이 죽고 이어 즉위한 인종이 다시 왕사가 되어달라는 청을 하였으며, 스님은 결국 인종 즉위년에 왕사로 책봉되었다. 이후 스님은 1129년(인종 7) 왕사로 봉해질 때 받았던 인장을 반납하고 이곳 운문사로 하산하였으며, 1144년(인종 22)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 계속 주석하였다. 스님의 하산 이후 “운문사 산문의 융성함이 근고 아래로 이러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의 후진 양성과 수행은 고려 중기 가지 산문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님이 왕사를 지낼 때, 운문사에 토지 200결과 노비 500명이 하사되었다는 사례를 통해서도 당시 운문사의 사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학일 스님은 대선사이면서도 자비행에 철저했던 고승이었다. “종도들이 스님의 도덕을 추앙하되, 마치 태산처럼 우러러 사모하며 또한 못 별들이 북두칠성을 향하는 것과 같았다.”는 비문의 내용은 이러한 스님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고려 중기 천태종 개창과 조계종의 와해 현상, 그 속에서 조계종을 지켜내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했던 분이 바로 학일 스님이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비석이 지금 운문사 경내에 세워져 있다. 고려 중기 운문사의 사격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던 스님의 비각 앞에서 잠시나마 합장경례를 올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존중하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일반적으로 고려 가지산문은 학일 스님에 이어 삼국유사의 저자인 보각국사 일연普覺國師 一然(1206~1289)에 이르러 크게 부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규보가 지은 「문선사애사文禪師哀詞」(『동국이상국집』 권 37) 등의 기록을 통해 학일과 일연 사이에 가지산문과 운문사의 역사를 이어주었던 혜문惠文 대선사라는 고승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보는 혜문 선사와 약관 시절부터 교분을 맺어왔다고 하며, 스님을 ‘도우道友’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동국이상국집』에는 혜문 선사와 관계된 여러 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글에 의해 혜문 스님은 1234년 입적하기 3년 전부터 운문사에 주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보는 「문선사애사」에서, “그 깎은 머리가 승려이고 그 입은 웃이 승려인데도 마음은 혹 그렇지 않은 이가 있는데, 우리 선사만은 참다운 대사라. 그 웃이 이미 승려였고, 그 뜻 역시 승려였네. 첫째 계행戒行에 결함이 없어 마음자리가 청정하였고, 나머지 일로 시를 짓되 봇 잡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그 뜻을 얻음에 이르러선 맑은 운치가 사랑스럽기만 하였네. 쓸쓸한 문도가 두서너 사미뿐이라. 누가 그 비석을 세우고 누가 그 시를 편집할 것인가? 슬프다. 우리 선사여! 이제는 그만이구려.”라고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규보가 우려했듯이 혜문 스님의 입적 이후 그를 기리기 위한 비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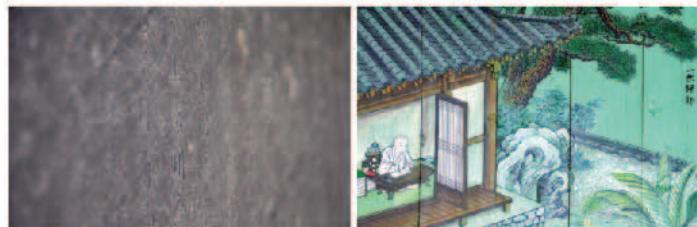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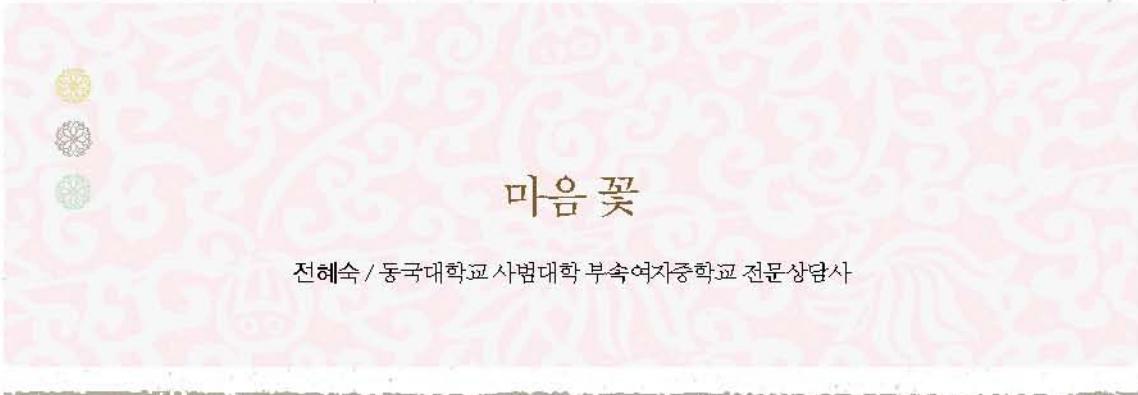
립이나 문집 발간 일 등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운문사에 주석했던 고승 중의 한 분으로 혜문 스님은 반드시 기억될 필요가 있다.

혜문 스님에 이어 가지산문과 운문사를 크게 빛낸 분은 일연 스님이다. 우리는 보통 일연 스님을『삼국유사』의 저자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의 본분사와 관계없는 성과물이었다. 스님의 비문에 전하는 100여 권의 편저류 목록에 삼국유사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예가 될 것이다. 스님은 가지산문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고 그 선문의 대표적 계승자가 되어 왕사, 국사의 자리에까지 올라 고려인 전체의 스승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다. 특히 일연 스님은 1277년(충렬왕 3) 이곳 운문사 주지로 취임하였는데, 스님은 '운문화상 雲門和尚'으로 칭해질 만큼 운문사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학일-혜문 스님에 이어 운문사는 일연 스님의 주석을 계기로 가지산문 중심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일연 스님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역사학자로 추앙받는 분이다. 이러한 위인이 바로 이 도량에서 수년간 주석하며 동시대 사람들에게 '운문화상'으로 칭해졌다는 사실. 지금 운문사의 사격에는 바로 이같은 사실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려 말의 문인 이제현은 보감국사 혼구 寶鑑國師 混丘(1250~1322)의 비문을 지었다. 그는 비문의 글에 불인 명문을 통해, 아홉의 갈래로 나누어진 선문에서 도의 스님이 유품이라는(道義其首)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이후, "바른 것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는 것은 운문사의 학일 스님이었고(守正矯失 雲門之一), 널리 배우고 독실하게 실천함은 인각사의 견명 見明(일연 스님을 말함) 스님이었네(博學篤行 麟角之明)."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도의에서 비롯한 선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선철先哲이 대대로 배출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 인물로 학일 스님과 일연 스님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특히 학일 스님은 '바른 것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는 것'에 뛰어났던 인물로, 일연 스님은 '널리 배우고 독실하게 실천함'에 뛰어났던 인물로 각각 평하였다. 이제현의 표현처럼, 고려 가지산문의 역사는 도의-학일-일연-혼구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도의 스님을 종조로 하는 현대 불교조계종의 역사에서도 이 같은 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운문사는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자,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심도량이라는 사격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특히 두 분의 스님, 즉 학일과 일연 스님은 운문사의 이 같은 사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고승이다. 그런데 학일 스님은 '바른 것을 지키는 일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평생 정진하셨던 분이었으며, 일연 스님은 '넓리 배우는 일과 독실하게 실천하는 일'에 빼어나셨던 분이라고 하였다. 두 분 스님의 이 같은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문사 도량 곳곳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분들이 남기신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천년 이상 지속되어온 운문사의 사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운문사에 계신 사부대중, 그리고 이 도량을 참배하는 사부대중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운문사의 자랑스러운 사격이 당당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마음 꽃

전혜숙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전문상담사

봄의 전령인 노란 산수유가 바람 타고 창가에 사뿐히 내려앉아 미소짓는 봄날입니다.

대자연의 일원인 인간의 마음 꽃과 더불어 학이 날개를 펴 우리 곁에 날아들듯 백옥 같은 우아한 목련 꽃과 고고孤高하고 청결한 아름다운 자태로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연꽃,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꽃들의 향연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지知·정情·의의의 움직임인 마음을 지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담자와 전문상담가 입장에서 만나 공감적인 관계로 교감(Rapport)하며 그들이 가족과 친구, 직장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희망과 꿈, 실망과 좌절을 어떻게 경험하며 소통하여 극복하는지 오랜 시간 조력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 묘하고 순수(冲虛妙粹)하여 밝게 빛나고 신령스럽게 밝아(炳煥靈明) 가고
옴이 없으나(無去無來) 가만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冥通三際)하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방을 환하게 깨뚫는다(洞徹十方).”

—『금강경오가해』 서문 중 —

이 글을 접하는 순간 환희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6근根, 6식識, 6진塵의 작용으로 습習이 업業이 되어 작용하는 것이 불변하는 실체이고 영원한 줄 인지認知하여 감정感情에 자유롭지 못하고 갈등과 괴로움으로 헛꽃만 피워 아름답고 향기로운 참다운 마음 꽂인 인성(Personality)은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지나 꿈과 열정, 책임과 헌신, 봉사로 청년·장년·노년기를 지나는 삶의 여정에서 내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요인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형(Archetype), 자아(Ego), 자기애(Narcissism)에 욕구(Need), 애착(Attachment), 열등복합(Inferioritycomplex) 등이 고착되어 도식圖式(Schema), 투사(Projection), 전이(Transference)되며 마음의 움직임은 다양해지고 고통의 무게는 더욱 심화됩니다.

탐貪, 진瞋, 치痴에서 비롯되는 내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과 대화의 방법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품격을 나타내고 소통의 근간이 되며 生生, 노者, 병病, 사死, 희喜, 노老, 애哀, 탁樂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언어적인 행동표현과 말의 원천(頭)은 바로 마음이기에 비언어적 표현과 말의 중요함은 대인對人 관계 소통의 장장에서 중요한 역할役割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불만은 표현하는 언어적인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나-메시지(I-message)와 너-메시지(You-message)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계되는데, 나-메시지는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너-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메시지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나-메시지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이지 않은 묘사 →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나의 기분 →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을 자비롭고 부드러운 표정과 억양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갈등을 해소하도록 돋습니다.

환경적,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을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진술성, 긍정적 존중으로 접수면접 → 관계형성단계 → 탐색단계 → 실행단계 → 종결단계에서 다양한 상담이론과 상담기법으로 상담과정은 진행됩니다. 이러한 진행은 라포(Rapport)를 형성하게 되고 적극적이고 공감적인 경청을 하여 내담자의 심리와 원함(Want)을 파악하고, 내담자와 목표를 설정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각自覺하고 치유治癒되도록 조력助力하게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 늘 떠오르는 생각은 “그 누구도 어떠한 이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심리학을 통달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이며 그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이 마음 속 깊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이미 부처를 이루고 있으며 마음이 어느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허공虛空과 같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학, 심리학은 서양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론의 한계점에서 석학碩學들이 동양철학,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 켄 윌버Ken Wilber, 크리스토퍼 거머Christopher K. Germer, 로널드 시겔Ronald D. Siegel, 폴 풀턴Paul R. Fulton 등 많은 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담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저자著者로 만나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 너와 나가 둘이 아님(不二)을 알고 아무리 어려운 갈등과 큰 고통이 있다 해도 우주를 품어도 모자람이 없는 주인의식을 지니고 마음을 자각自覺하여 대상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Energy)과 해답解答이 자신의 내면內面에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마음 꽃으로 화엄세계華嚴世界를 장엄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입니다. 아름다운 지구地球, 나아가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우주宇宙의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수지受持하고 선지식善知識을 만나 수행修行精進하여 마음의 꽃을 만방萬方에 펼쳐 향기롭고 평화로운 불국토佛國土가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 ●





운문사의
봄을 담아...



김은주 작가님은 경성대학교 회화과(한국화) 수석입학과 졸업을 했으며 중국 북경사회과학대학 어학연수, 중국 항주미술대학 산수화과 과정을 졸업했다. 중국 천진미술대학 산수화과를 수료했으며 저서로는 「멘토아트리에」가 있다. 현재 그림 재능보시로 『자장경』 등 각종 서적에 표지그림을 실고 있는 유능한 화가이다.

반야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돈수 / 대교파

대중스님 여러분! 세상에서 순수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누군가는 ‘눈물’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해 타산적이거나 계산적이지도 않고 맑고 깨끗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저는 처음으로 운문사에 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는 스님의 소개로 여름불교학교 도우미 선생님으로 참여하여 스님들께서 준비한 프로그램과 진행으로 아이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들을 쫓아 다니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냥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여름불교학교와 다르게 아이들이 스님들과 늘 함께 하면서 보내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전 운문사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2년이 지난 후에 삭발염의를 하고 다시금 운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사집, 사교 때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비롯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집반 때는 여름불교학교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특별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나 피해를 입힐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기에 어머니를 안심시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혼자 지내서 신경이 쓰였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였으며 소감문에도 엄마를 떠나 혼자서 보낸 자신이 대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였기에 그 아이에게도 2박 3일의 시간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따스한 눈빛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화부 지하에서 힘들게 준비했던 여름 한철과 빌바닥에 불이 날 것처럼 쫓아 다녔던 2박 3일이었지만 즐겁게 웃으면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름불교학교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사교 때는 여름불교학교 사회자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어른스님과 많은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지 사회만 맡는 것이 아니라 여름불교학교 전체의 음향이나 전체 프로그램을 알고 진행해야 하였기에 부담감이 더했습니다. 입재식을 진행하는 내내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려 했으며 아이들 앞에서는 나를 향해 있는 그 똘망똘망한 눈들이 나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작년 여름불교학교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려집니다. 부모은중경 사경을 하면서 울먹이던 아이들의 모습, 이목소에서 시간 기는 줄 모르고 물놀이하는 모습, 단무지로 발우를 셋어 먹는 게 싫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 이튿날 저녁 소원을 적은 風燈이 저 히늘 위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여 간의 짧은 준비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슴에 하나라도 더 담아가게 하고 싶은 스님들의 마음이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더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 여름불교학교를 참여하면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 포교이지 멀리서 하는 것이 포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미래의 새싹인 아이들에게 좋은 심성을 심어주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어린이 포교가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절에서 배우고 익혔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씀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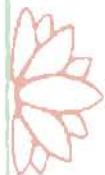
‘간절한 마음은 닳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라면 아이들 또 한 따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 「방편 품」을 인용하며 저의 차례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이가 불상이나 탱화 앞에 절을 하거나 합장하거나 한 손만을 들거나 머리를 약간 숙여서 경의를 표하더라도 그는 차츰 부처님을 친견하고 불도를 이루고 무수한 중생을 건지느니라.

어떤 이가 산란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중이라도 부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불도를 이루리라.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모아 불탑을 만들었어도 그 아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나뭇가지나 봇이나 손톱으로 불상을 그리면 이런 아이들이 차츰차츰 공덕을 쌓아 대비심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어서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무량중생을 건지느니라. ☺



불교의 명상과 지관문止觀門 1

정행 / 대교과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명상수행

- 1) '선禪'을 의미한다.
불교 명상은 선禪수행이다
 - 2) 선禪수행의 방법
 - 3) 불교 수행의 대표는 지止와 관覺이다
2. 만트라Mantra수행
- 1) 가장 쉽고 빠른 지관 수행은 만트라 Mantra 주력呪力이다
 - 2) 만트라Mantra의 의미
 - 3) 만트라(진언 또는 주력呪力)의 힘으로 삼매에 들어가기
 - 4)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진언 선택하기
3. 원효 스님의 지관문止觀門
- 1) 신심信心를 완성하는 다섯 가지 수행
 - 2) 어떻게 지관문止觀門을 수행하는가?

III. 결 론

I. 서 론

요즈음 명상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 감정을 가라앉히는 수행인데, 미국에서는 현재 200여 개의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보완요법'으로 명상을 쓰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명상의 열풍으로 인해 고승高僧들만의 신비한 세계로 여겨졌던 명상의 문턱은 낮아지고, 대중에게 보급되어 현재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같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요새 떠오르고 있는 힐링Healing¹⁾캠프나 명상센터, 명상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는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학에는 명상과 관련된 학과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자비 명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20분 동안 마음으로 '자신이 건강하고 소중하다'는 자비의 상상 죄면을 걸어 뇌에 가상적인 자극만 주어도 통증은 감소되고 면역력은 증가하여 빨리 회복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해 행복감을 느끼는 수치가 높아지는 생활 실천 명상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황금 만능주의와 인간경시 풍조로 감정이 메마른 궁핍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감정이 메마르니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다. 실제로 감동을 하면 우리 몸의 약 60조에 달하는 세포가 고주파 에너지에 감전되듯, 강한 에너지를 전달받아 뇌의 능력이 고도로 활성화되어 뇌의 정서 회로가 변한다고 한다. 얼마 전 사망한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조던, 리차드 기어, 스타워즈 감독인 조지 루카스 등은 명상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냥 사는 듯하지만, 항상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업, 업장業障, 업식, 또는 카르마²⁾라고도 하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



나 업력業力으로 인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 많은 인연의 벼과 만난다.

따라서 명상을 통한 자기수행으로 업장을 녹여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II. 본 론

명상冥想(Meditation)의 사전적 의미는³⁾ ‘명상하는 주체와 명상되어지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순수 집중상태’ 또는 ‘집중·사색·추상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예배나 정신훈련’으로 영적인 자각이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을 말한다. 불교에서 명상의 의미는 일반적 명상과는 약간 다르다. 서구식西歐式 명상은 요즈음 유행하는 호흡 명상인데 단순히 일시적으로나마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한 명상의 기초단계다. 불교의 명상수행이 일반수행과 다른 점은 생활은 같이하되, 연기법緣起法을 기초로 하여 마음으로 무아無我, 무상無常, 공空을 잊지 않는 것이다.

17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불교 명상수행을 살펴보고 선수행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가장 쉽고 간단한 명상 훈련으로 마음이 감동을 받을 일이 많아지는 따뜻한 한국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불교적 관점에서 명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음의 번뇌를 조복받아 최고 목적인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수행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명상수행

1) ‘선禪’을 의미한다.

불교 명상은 선禪수행이다

한마디로 지관止觀수행을 말한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각자의 근기와 생활방식, 방법 및 수행 단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은 모두 같다.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남을 그쳐(止) 모든 상황을 통찰하여(觀) 얻는 지혜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삼보三寶의 은혜를 회향하는 것이 불교의 선수행인 지관止觀수행이다.

선禪은 좌선坐禪의 약어略語며 산스크리트어 Dhyana를 음역한 선나禪那를 줄인 말로 선정禪定 또는 정定으로 번역된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물에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혼란해지는 것을 막고(止), 밖으로는 일체 모든 현상을 무상無常, 무아無我, 고 苦로 살펴보아(觀) 얻는 지혜로서 우리의 품성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 본래面目, 곧 불성을 바로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것을 선禪 또는 참선參禪이라 한다. 또 깨침을 위해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라는 뜻으로 사유수思惟修 또는 정려靜慮라고도 번역한다. 한국불교에서 선禪은 간화선看話禪을 의미하며 간화선, 참선參禪, 그리고 좌선坐禪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2) 선禪수행의 방법

지금 현재 스님들의 선禪수행 방법은 대략 기도, 간경看經, 염불, 걷기, 예불, 독송, 화두참선, 요

1) 힐링Healing : 몸이나 마음의 치유. 명상의 하나. 힐Heal은 고치다, 낫다의 뜻.

2) 카르마Karma : 어떤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된 일체행위. 신구의身口意 3업이 있음. 전생에 지은 선악의 소행所行으로 현세에서 받는 응보나 과보.

3) 「한·영 불교사전」, 「인터넷 국어사전」 불광출판부 서광 편찬.

가, 주력呪力, 사마타Samatha(지止), 위빠사나Vipassana(관觀) 등이다. 선禪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처럼 참선도 일상생활이 모두 선禪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선禪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禪이란 어디까지나 각자의 체험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의식意識을 초월함으로 언어로는 표시할 수 없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으로 인간의 생활 자체에서 순간순간 멈추고(止) 살펴보아(觀) 각자의 근기에 따라 상황에 맞는 지관수행으로 중득해야 한다. 대승불교의 대표적 선禪은 다음과 같다.

① 간화선看話禪

화두선話頭禪과 같은 뜻으로 오로지 매일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화두話頭’에 집중하여 마음을 살피는 임제臨濟의 선풍禪風이다.

② 조사선祖師禪

부처님의 교리인 경전보다 6조 혜능 같은 역대 선종의 선사禪師들 말씀과 어록語錄을 중요시하여 보리달마 아래 正傳되어 온 禪으로 教外別傳 - 不立文字를 주장하는 6조 혜능 문하의 남종선풍을 말한다.

③ 묵조선默照禪

화두 없이 묵묵히 앉아 지관타좌只管打坐라고도 하며 마음을 쉬어(止)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곧 깨달음이라는 좌선을 강조하여 위의즉불법威儀即佛法으로 통한다.

④ 여래선如來禪

여래선은 능가경에서 설한 것으로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처음으로 전하여 천태天台에 와서 체계화된 선禪으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중요시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는 선禪공부이다.

⑤ 염불선念佛禪

염불과 선禪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 쌩수禪淨雙修라고 말한다. 선禪은 선정禪定의 준말이고, 정淨은 정토淨土의 준말로 신구의身口意로 끝없이 부처님을 염念佛하여 깨달음을 얻는 지관 수행이다.

⑥ 좌선坐禪

정좌正坐한 자세로 일체의 생각을 쉬는 것으로, 좌선에 대해 6조 혜능은 밖으로는 일체의 선악 경계에 마음과 생각을 그치어(止), 안으로는 자성을 비추어 보아(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마음이 부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선정禪定인 지止라 하고, 그 마음을 일컬어 지혜智慧인 관觀이라 한다고 말한다.

⑦ 행선行禪

걸으면서 가만히 마음을 관하고 살펴보는 지관 수행이다.

3) 불교 수행의 대표는 지止와 관觀이다

명상을 하려면 하고 있던 행동이나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집중하려면 멈추어야 자세히 볼 수 있다. 멈추는 것이 지止이고 자세히 살핌이 관觀이다.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그칠 때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지止와 관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止는 범어梵語 사마타Samatha의 한역으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삼매三昧를 개발하는 수행으로 정定, 선정禪定, 적정寂靜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또는 집중명상이라 하며 외계外界의 대상을 향한 감각 기관의 번뇌를 제어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② 관觀은 산스크리트어 위빠사나Vipassana의 한역으로 일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명상하고 관찰하여 무상·고·무아로 통찰하여 얻는 지혜 수행을 말한다. 또는 통찰 명상이라고 하며 혜慧, 지혜智慧, 정견正見, 비발사나毘鉢舍那, 내관內觀 등으로 번역되었다.

사마타를 먼저 닦을 것인가 위빠사나를 먼저 닦을 것인가는 인연 닿는 스승의 지도방법과 수행자 자신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닦을 것을 강조하셨다.

초기불교⁴⁾의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지止와 관觀으로 이어서 선종에서 정혜쌍수定慧雙修, 지관겸수止觀兼修로 계승되었다. 초기 경전인 「앙굿따라니까야」인 중일아含경에서 부처님은 사마타를 마음과 마음의 해탈 즉 삼매와 선정이라 하시고, 위빠사나를 통찰지인 반야 지혜와 연결지으셨다. 그리고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수행이고 통찰지는 무명을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히고 계신다.

2. 만트라Mantra 수행

1) 가장 쉽고 빠른 자관 수행은 만트라Mantra 주력呪力이다

5분 정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뿜는 자비호흡 명상을 해도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자주 낸다. 이는 감정의 기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화의 원인은 그 뿐만 아니라 분석하여 들어가 보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데서 화는 불처럼 일어난다.

『불유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와서 너의 사지를 마디마다 자르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 입을 잘 다스려서 나쁜 말을 삼가라.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하면 도道를 해쳐서 공덕을 잊게 된다. 계율을 지키거나 고행하는 것보다 인욕하는 공덕이 매우 수승하다.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았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만약 참기 어려운 경계가 닥쳤을 때 감로수를 마시듯이 욕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웃어넘겨라. 또한, 그대에게 욕한 사람을 공부시켜주는 선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섬긴다면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智者)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4) 초기불교 : 불교의 교리가 초기에 아직 다양하게 전개 또는 정리되지 않았을 때의 불교, 또는 부처님 시대부터 야소카왕(B.C 268~B.C 232) 시대까지의 불교.

함께하는 전통매듭



매듭—매듭每緝이란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끈이나 줄을 이용하여 맺고, 엮고, 짜는 섬유제작 자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앞뒤 모양이 똑같고, 중심에서 시작하여 중심에서 끝나며,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맺고 엮고 짜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우리에게 전수하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다. 시원始原은 알 수 없으나 고기잡이 그물이나 사냥용 채집용구 등의 생활용구에서의 존재를 볼 때 매듭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매듭은 문헌상의 기록이나 유물만으로 이해하고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전통매듭이 가장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였던 시대는 조선 시대였고 주로 궁중 예식, 실내 장식, 국악기 장식, 복식과 유소 등 그 당시의 생활 미화美化 전반에 걸쳐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의 격조 높았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매듭의 특징은 첫째, 세 점 이상이 한 선 위에 고차하면서 이루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앞면과 뒷면이 같으며 좌우대칭인 것이다. 세 번째는 쉽게 맺고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며 일부려 풀 때까지는 풀리지 않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가지으로 맺어지는 것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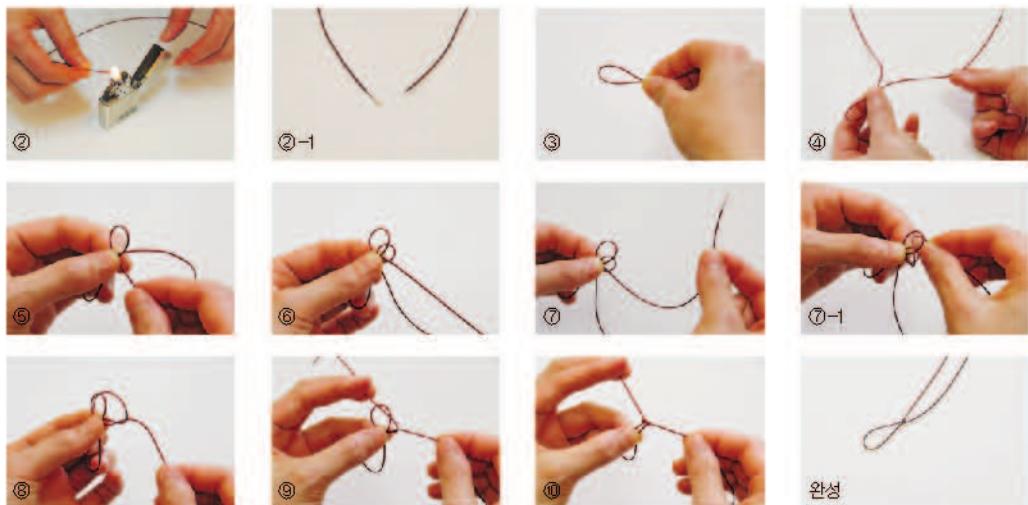
불교에서도 매듭은 연꽃 대로왕 가리路王旗, 병자 경전 책걸피 등의 장식으로 보인다. 근대에는 실용매듭이라 하여 핸드폰이나 차량의 전신구로 많이 활용된다. 매듭의 종류에는 도래 매듭, 가리지 매듭, 생죽 매듭, 길이 쉽게 풀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매듭부터 장구 매듭, 국화 매듭, 병자리 매듭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매듭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운문, 운문인 코너에서는 쉽게 맺을 수 있으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대표적인 매듭을 세 번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의 매듭은 금강 매듭과 생죽 매듭, 짙선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금강 매듭을 소개하겠습니다.

● 금강 매듭

준비물 : 매듭실, 라이터, 가위



1. 매듭실을 원하는 길이만큼 준비합니다.
2. 매듭실의 끝을 불로 살짝 자진 다음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3. 원하는 고리만큼 원을 만듭니다.
4. 두 줄 가운데 아래에 있는 실을 윗실 위로 올려 감싸면서 원을 만듭니다.
5. 만들어진 원을 엄지와 검지로 잡습니다.
6. 잡은 원 뒤로 현재 잡고 있는 원보다 조금 작게 똑같은 원을 만듭니다.
7. 원을 만든 선을 놔두고 남아 있는 선을 잡고 첫 번째 원 안으로만 통과시킵니다.
8. 잡고 있던 원을 만든 선을 들면서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9. 엄지와 약지로 고리 부분을 잡고 약지와 중지로 원쪽 선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선을 잡습니다.
10. 각각 잡은 곳을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겨 매듭을 짓습니다.

* 금강 매듭의 ‘금강’은 금강석과 같이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끊이면 일부러 풀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금강매듭이라고 합니다.

소통의 키워드

진서 / 대교파

언제나 풀릴까 싶게 두껍게 열어붙었던 이목소의 물도 ‘졸졸졸’ 제법 상쾌한 소리를 내며 녹아 다시 흐르고, 마른 가지 다 떨치고 읊씨년스럽게 서 있던 나무들도 이제 태동준비에 분주한 봄이다.

이른 아침 운무에 가려져 신비롭게만 다가왔던 운문사에서의 생활도 이제 4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꿈만 같이 아득하다. 치문 첫 철부터 지내온 매시간이 추억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수행생활에 훌륭한 양식이 될 것이다. 먼 길 떠나는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양식.

지난해 가을, 나의 소임은 ‘회계’였다. 가위바위보에서 몇 번을 이기기도 했거나와 설사 자원을 하더라도 주변의 앞선 걱정에 미루어져 왔던 소임이었다. 마땅히 겪어야 할 상황을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보다 더 크게 온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었다. 비록 자의가 아니었다 해도 말이다. 윤달이 끼어서 소임을 4박 5일 혹은 5박 6일 단위로 18번을 살아야 하는 길고 긴 여정이었다. 철이 시작되고 소임을 맡자마자 조금의 여유도 가질 틈 없이 바로 난코스, 숨 돌릴 여유 없이 맞게 된 큰 행사에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운문사에서의 사교반은 일명 엄마반으로 대중의 음식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후원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시기가 가을이다 보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을 뿐 아니라 소소하게 여기저기 인원을 배치해야 할 상황이 빈번해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긴 가을철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반 스님들도 서서히 지쳐갔고 나 역시 그렇게 날마다 동동거려야 하는 일상에 차츰차츰 매몰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나와 반 스님들은 ‘소통 불가’의 상태를 맞이했다. 소통이란 단어가 키워드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완전히 벽을 미주한 듯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압박감 때문인지 가슴이 항상 답답했고 그 한편으로 몰려오는 자괴감도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치문, 시원한 바람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탁 트인 밭에서 일하니 서로에 대해 적당히 너그러울 수 있었던 사귐을 지나 맞이한 사교. 상반이라고 좋아했건만 물기에 젖어 있는 축축한 후원에서의 울력, 멋진 음식이 되기 위해 손질을 기다리는 많은 식재료에 치이며 항상 밀가루와 고추장으로 물들인 울력복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사교의 일상에 적잖이 당황한 우리들이었다.

후원에서 대중스님들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준

비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처한 상황에 따라 또한 사람들의 심리상태도 만만치 않게 변하게 된다. 간혹 큰 일을 당하면 대범하게 행동하며 마음을 크게 쓰지만, 신기하게도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는 마음 쟁쟁이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였다. 치문 사집 때와 달리 대중 소임이 늘어나면서 또한 입장 차이도 더 벌어졌다. 그렇다 보니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 일쑤였고 중재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팽팽하게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여 속앓이를 하기도 했었다.

2년을 넘도록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관계의 이합집산이 끝나고 어느 정도 친소관계가 정해지면서 그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자의 비애는 생각보다 컸다. 제법 긴 기간을 잊을 만하면 병고자 신세가 되곤 했던 나에게는 강원생활에서 소임을 살 때 꼭 필요하다는 일명 독수리 오형제 –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며 내미는 손을 잡아줄 그런 도반 – 가 없었다. 이러저러한 상황에 허우적거리느라 ‘나’ 자신을 수도 없이 놓치고 또 놓치며 살았다.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그때는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내주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기에 급급했고 매사에 시시비비를 따지며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두 눈 부릅뜰 뿐이었다.

마음 공부는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공부라 했다. 농엄경부터 금강경, 원각경 등 여러 경을 보고 배웠건만 일상의 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올 때면 그 괴로움은 한층 더했다.

至道無難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唯嫌揀擇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但莫憎愛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洞然明白 통연히 명백하리라.

그렇게 미워하고 좋아하며 끊임없이 간택하고 나와 너를 구분짓느라 한 철을 다 보내고 말았다. 그땐 왜 한발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때를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출가할 때 허공 같은 마음, 천하를 다 덮고도 모자랄 앞이 탁트인 마음을 써야 한다고 일러주신 노스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

어떤 대상이건 상대와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아직 내가 그것에 대한 경험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충돌이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무런 분별심 없이 대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한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그 도리를 우리는 항상 놓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할 일이다.

소임을 살고 난 뒤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소통의 키워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단 내 모습도 수용하고 상대의 입장도 헤아리며 나의 것대로 상대를 이러저러하게 재단하지 않고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소통한다면 그때처럼 ‘소통불가’의 상태는 맞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저 마른 가지가지마다 여린 생명들이 움틀 것이다. 봄은 생동의 계절이다. 나도 이제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 더 큰 원을 세우고 실행하는 깨어 있는 수행자로 거듭날 일이다. 日新又日新할 일이다. ☺

기도는 나의 힘!

보현 / 사교파

2013년의 새해가 밝았다. 출가한 지도 4년이 지난 것이다.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도, 가사 장삼을 수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불을 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과연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진정으로 나를 바꾼 것은 출가라는 형식도 4년이라는 시간도 아닌 바로 기도였다.

그 시작은 행자 시절로 돌아가는데 당시에 나는 기도가 강요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수험자를 물리치고 내 아들만 불게 해주세요.’ 라든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만은 살려 주세요.’라는 보살님들의 이기적인 집착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도보다는 하루를 얼마나 평안히 보냈는지 온전히 깨어 있었는지를 점검해 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똑같은 긴장감 없는 하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잠시 주어지는 쉬는 시간도 잠과 수다로만 채웠다. 이런 내가 한심했는지 원주스님께서 「까닭스승 랑리탕빠의 기도문」을 보여주셨다. 그 중에 나의 마음을 움직인 구절이 있었다.

“…한량 없이 많은 살아 있는 존재들 보배로운 여의주와 같이 귀하게 여겨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변함 없이 그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누군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선不善을 행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득은 오히려 그들이 갖게 하소서. 신뢰와 기대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도와주었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직간접으로 얻은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인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회향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는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이 글귀를 읽었을 때 무엇보다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나를 미워하고 해친 이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의 발원이 내게는 충격적이었다.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깨지고 나도 그처럼 살고 싶어졌다.

행자가 자유로운 시간은 아침공양 후 잠깐, 점심공양 후 잠깐뿐이다. 이것도 계획된 행사나 손님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달콤함이다. 이런 시간들을 아껴서 절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런데 기도 마지막 날에 30명의 손님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점심을 먹지는 않지만, 차와 과일을 준비해야 하니 제일 막내였던 나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기도 중에 온다는 마장이니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어차피 회향일을 맞출 수 없다면 여기서 그만두자는 유혹까지 일었다. 이런 혼란은 회향일 아침 기도까지 이어졌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절을 한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의 망상 땅어리를 토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고 싶었다. 내 의지로 처음 시작한 기도를 잘 끝내고 싶었다. 물론 원하는 날짜에 정해진 만큼의 양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내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라도 끝까지 해보자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평안해졌고 절을 하는 게 쉬워졌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한참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명의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며칠 전에 예약까지 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쁘기보다는 그저 이상하고 묘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요란하게 차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일은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은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부처님의 계획, 영향력 혹은 위신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본다. 덧붙여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의견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색안경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기도처럼 내가 아무런 망상 없이 절만을 했다면 당연히 회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꼭 제날짜에 마쳐야 한다는 욕심이 기도를 방해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내가 잘났다 혹은 옳다는 소견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세상을 불편하게 혹은 비뚤게 보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실패까지도 부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나를 되짚어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도 「까닭스승 랑리탕빠의 기도문」을 읽는다. 그의 마음은 나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반성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 내 생각에 빠져 전체를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자만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한다. 그래서 타인은 또 다른 나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이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바로 그대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도의 가피가 얼마나 있었는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부처님의 계획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남의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기에 나는 기도한다. ☺

신新 성행당기省行堂記

주성 / 사집파

성행당省行堂은 중병자들이 요양하는 당을 말한다. 중국 송나라 때 초연거사超然居士는 성행당이 설립된 본뜻을 「성행당기省行堂記」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성행당은 곧 자기의 몸과 수행을 닦고 살펴서 병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대사를 참구하고 탐색하는 곳이다. 이 사바세계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성행당이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삼독이라는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이어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중생병을 치료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중생병 중에서도 특히 육체의 질병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훌로 살아가는 수행자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직접적이고도 힘겨운 장벽이다. 이곳 '운문성행당'도 마찬가지다. 아픈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다.

깁스를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웃반 스님을 볼 때, 발우도 폐지 못하고 부처님께 절도 못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어수선한 지대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있는 아픈 도반을 볼 때, 조금 전까지 쓰러져 있다가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고 울력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약해진 몸을 따라 마음까지 허물어져 가는 도반의 혼들리는 눈빛을 애써 외면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울먹이며 장기출타를 하고 싶다고 반 스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도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도 따라 울고 싶어진다.

무엇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하는가. 소위 우리를 가리켜 대장부라 하지 않는가. 격식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얹매임이 없는 당당한 출격장부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아플 수는 없는 일이다. 병과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수행자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방학 때의 일이다.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한의원을 찾았을 때 몸의 이상 증상을 이야기했다. 친절히 듣고 계시던 한의사 선생님이 대뜸 말하셨다.

"스님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다만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모두들 정반대로 아주 약하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었다.



가까운 누군가는 “사람이 되다 말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여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살았다.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났다면 정신력으로 승부해주겠다고 결심한 후 모든 일을 악착같이 하자 나중에 사람들은 나더러 아주 독하다고 했다. 그렇게 몸과 정신의 대립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온 인생이었다. 때로는 몸이 이기기도 하고, 더러는 정신이 이기기도 했으나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몸과 정신은 사이좋게 서로 돋고 어우러져야 하는 관계이지,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식의 그런 긴장대결 관계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한의사 선생님께 따지듯이 되물었다. “잘못 진단하신 게 아닙니까?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자 그는 전문용어를 써가며 뭐라 뭐라 설명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그 말만 머릿속에 맹맹 거렸다.

그날 함께 동행한 도반스님과 집 식구들은 몇 날 며칠을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의 ‘건강 선언’에 시달려야 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다지 뭡니까? 다만 정신력이 약해서 여태까지 골골거렸나 봅니다.” 정말이지 그 말을 ‘만트라’처럼 여기저기 선언하고 다니다 보니 진짜로 그렇게 여겨졌다. 골골대던 이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사실 난 그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 역시 아니었다. 다만 타인이 그리고 나 자신이 규정한 틀 속에 구겨져 살아온 것뿐이었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마다 곧바로 정신은 잔뜩 긴장하며 손톱을 세우고 방어 내지는 전투태세에 들어가 스스로를 학대하며 싸워왔던 것이다.

행자 때 결제 철 하채공 소임을 살던 중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모두들 소임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했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방문 치료한 한의사 선생님은 속가 집으로 돌아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도마 한 개를 힘도 없는 몸으로 3단 끌차에 달랑 도마 한 개를 신고 다니면서 김치를 썰고 짠무를 썰며 찬상을 차렸다. 어떻게 하면 동선을 줄이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힘이 덜 들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일했지만, 찬상이 늦는다는 걱정을 한 철 내내 들어야 했다.

이런 식이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혼자 억지를 부리며 평화를 깨뜨리고 톡하면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싸움을 불이는데 털이 안 나면 이상한 일이다. 나는 정신이 약한 사람이 맞았다. 약한 사람이 더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내 몸은 생각보다 건강한 게 맞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수시로 싸우는데 이 정도로 살아온 걸 보면 대견할 정도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의 지난至難했던 싸움을 그만두고 몸과 정신을 화해시켰다. 그동안 억지를 부리며 살아서 미안하다고 스스로에게 빌고 또 빌었다. 아프든 아프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늘 한결같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주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래부터 나는 완전하게 태어났다고, 본성 자리는 물론 이거니와 몸의 자리도 그러하다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아이처럼 그냥 믿어 버렸다. 그래서일까. 지난 철에는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모두들 놀랄 정도로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했다.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았던 3개월 동안의 종두 소임을 몸도 마음도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었다.

초연거사는 「성행당기省行堂記」의 말미에 이렇게 격렸다. “사람과 병을 모두 잊거든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할지니,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아픈 몸을 위해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직 용맹정진할 일이다. 병이 찾아올 때는 잠시 쉬어라도 가면서 말이다. ●





이제 시작합니다

고경 / 사미나파

역사의 흐름을 느끼는 처진 소나무를 지나 대웅보전의 화려함에 고개 숙이며
당당히 운문사 강원생의 모습으로 불이문을 들어섰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높디높은 명성의 운문사 강원에
제가 ‘치문반’의 이름으로 당당한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두근거림과 설렘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붉게 상기된 불들이 그 느낌을 대변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3시 목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조차 모르게 알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살얼음이라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길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법당에서 당신의 존귀한 명호를 목 놓아 외쳐봅니다.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눈이 시리디시립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니,
제 옆에 도반이 있습니다.
제 뒤에 선배님들이 베품목으로 서 있습니다.
제 뒤에 어른스님의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느낍니다.

당신의 큰 힘에 자리를 잡아 제가서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발원을 합니다.
“쓸고 닦고 다듬고 매만져 운문의 금강이 되리라.
‘나’ 아닌 ‘우리’로.”





‘行佛’ 하세요 – 경기도 이천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뵙고 – 선운 / 대교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외룡산 자락에 위치한 행불선원은 주변에 천주교의 성지와 서당이 있어 천주교·유교·불교가 공존하는 종교의 융합과 동서 문화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원래 계획은 점심공양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서 공양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양 후 신도님들과 함께 산행을 해야 하는 스님의 일정표에 맞추다 보니 계획에 전혀 없던 산행을 하게 되었다. 눈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두루마기 끝자락은 계속 발에 밟히고…….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1시간 넘게 산행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 산의 초입에 ‘꾸띠 정진’이라 적혀 있던데 어떤 정진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처님 당시에 여름이나 따뜻한 날에 ‘꾸띠 정진’을 해요. 정진용 개인 초막을 ‘꾸띠’라 말하고, 부처님 계신 초막을 ‘간다 꾸띠’, ‘향실’이라고 불려요. 여기서는 초막 대신에 각자 원하는 곳에 개인 텐트를 쳐요. 예불·공양·대중 정진은 법당에서 다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텐트에서 정진하는 것을 ‘꾸띠 정진’이라고 해요.



— 스님 개신 방에 티벳불교의 탕화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3년 전부터 해마다 신도들과 같이 인도의 다람 살라를 갔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뵙고 법문도 듣고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때마다 존자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지요.

— 달라이 존자님을 3년 동안 찾아 기르침을 받으시면서 우리 불교와는 어떤 다른 점을 보고 깊명을 느끼셨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절의 신도·스님 위주로 법회를 하는데 거기는 세계적, 국제적 법회답게 4개 국 어로 동시통역을 해요.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에는 한국인을 가운데에 앉히고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 들이 앉고 그다음에 티벳인들을 앉혀요. 한국어 통 역도 해주고요. 이것이 정말 국제적인 법회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구나 싶었어요.

법회 하는 중간에 밀크 버터차와 빵 그리고 객비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나누어 주는데 꽤 장히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국제적인 법회 분위기와 그것을 이끌어가는 유쾌한 존자님, 공양물을 공개적으로 나누어 주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 존자님께서는 어떤 법문을 주로 하시나요. 스님도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스님만의 특색은 무엇이며, 법문은 어떻게 하시나요.

존자님 법문은 당연히 중도설이나 대승불교에 대해서 설해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많이 와 닿습니다. 한 예로 재작년에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게 치유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아파서 수술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치유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법상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경전의

내용은 다 비슷해서 진솔하게 풀어내면 마음에 와 닿아요. 하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해 버리면 와 닿지가 않지요.

나도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법회를 하든 글을 쓰든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한 가지 주제에 충실한다. 둘째, 둘이서 대화하듯이 한다. 셋째, 삼삼하게 경험을 살려서 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요.

경전을 풀이할 때에도 첫째는 쉽게, 둘째는 재미있게 해야 해요. 학인들에게 강의할 때 어떻게 하면 경전의 내용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나온 책이 「영화속 불교여행」인데, 경전의 내용을 영화에 비유해서 풀이해주시니까 매일 졸던 학인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더군요. 모르는 얘기만 하면 지루하지만 아는 얘기 반, 모르는 얘기 반 섞어 하면 효과가 좋아요.



— 여기 행불선원에서는 어떤 수행법을 하며 행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가의 수행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몸 보기, 둘째는 마음 보기, 셋째는 성품 보기로 나눌 수 있어요. 견성법, 화두법은 성품 보기이고 남방의 위빠사나는 몸 보기, 마음 보기만 있고 성품 보기 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몸·마음·성품 보기 순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전강독도 하니까 선교禪敎 경수를 합니다. 이곳 이천 도량에서는 선을 닦는 수행 위주로 하고, 서울의 경전교실은 경전이나 어록을 강의해요. ‘행불’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로서 수행불행修行佛行,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는 뜻이지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성불이 아니라, 본래 부처가 자기의 본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행불이에요.



— 석·박사학위를 따시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계시다가 즐기기를 하셨는데, 강원생활 중 에피소드나 지금 강원을 다니고 있는 저희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집 끝나고 선방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온사스님(고산 스님)께 시자를 살면서 “스님 선방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곧바로 하신 말씀이 “졸업했어? 졸업도 안 하고 어딜 가?”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선방의 마음을 절었어요.

강원을 졸업한 덕분에 강사생활도 할 수 있으

니 온사스님 말씀이 맞으신 것이지요. 학인으로 있으면서 중강스님이 간혹 틀리는 부분이 보여도 절대 아는 체하지 않고 혼자 간직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지요. 만약 강원 오기 전에 교수로 강의했다는 티를 내고 잘난 척을 했다면 아마 스스로 무덤을 팠겠지요.

지금의 강원은 현실상 울력이나 다른 외전 공부도 해야 해서 짧은 시간에 진도에 맞추어 내전을 나가니 내공을 쌓을 수 없어요. 내전 공부는 원문만 한문으로 보고 외우기만 해도 자연히 번뇌 망상이 설 수 있어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요즘은 외전에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비추어집니다. 그건 정말 불교공부가 아닙니다. 외전도 내전이 충실히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인 스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배풀고, 전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갖게 되며 그런 풍토가 될 때 우리나라의 불교가 세계적, 국제적인 불교가 된다는 스님의 말씀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한 짧은 면담이었지만 긴 여운을 남기게 했다. 한국불교는 선불교에 치중해 있다 보니 깨우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본래 성불임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나의 이웃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의 본래 성불을 깨닫는 것이며 더불어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온화한 미소와 자비로운 말씀 속에 학인들을 위한 따끔한 조언을 해주신 월호 스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끝없는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 ♣

일장춘몽 一場春夢

진옹/사집화



홍선 스님의
한시읽기 한시일기 『맑은 바람 드는 집』

현주 /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맑은 바람 드는 집』이라는 책에는 전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이셨고 현 주지스님이신 홍선 스님께서 계절에 맞는 한시를 고르고 그것을 번역하고 손수 편지지에 옮겨 적은 글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한 시에 맞게끔 산중에 사시는 스님의 일상과 사계절을 통해 보는 자연과의 소통, 세상의 일들을 향한 격하자는 않지만 따끔한 일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스한 눈길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고 있다. 기존의 이 코너에서 보여온 책 소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나는 계절별로 적어놓은 스님의 글을 뽑아 적고 거기에 나의 짧은 생각들을 엮어 보았다. 들여놓은 글들은 홍선 스님의 것이며 그 밑에 내어 쓴 글은 그 글을 읽고 느낀 나의 단상斷想들이다.

春 미화와 수암버들이 점령점령 불 강을 건너고 있지 싶습니다.

불밀이 있어 낮에 짐칸 시내에 나갔더니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정말 장날이었습니다. 큰길 가녘 보도, 샛골목 사이 사이를 일부러 어슬렁거리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칭구경을 했습니다. 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금낭화와 딸기를 사기지고 별길을 돌렸습니다.

승복을 입고 장을 가웃거리며 봄 내음을 맡으시고 꽃과 과일을 사시는 스님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지는 듯합니다. 칼칼하게만 보이시던 스님이 친근해지는 듯해서 좋습니다.

夏 마당 위로 때글때글 쏟아지는 햇살에 여름이 익어갑니다.

한가로운 시간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는 부처님께 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닐는지요?”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아난에게 돌아온 답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난야!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여름이 한고비를 넘기는 즈음에, 스님은 몇 해 전 보았을 때 아무지고 당당하던 몸매가 많이 헐거워진

친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어찌 지내는지를 오래 궁금해 했습니다.

저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범음을 찾고자 영어와 논문으로 땀을 흘리며 써름하고 있을 비쩍 마른 도반이 그리운 날입니다.

秋 히늘 단풍이 하도 고와 그 아래 희옷을 입고 서면
쭉빛 물이 들 것만 같은 나날들입니다.

절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교만을 부르나니, 그래서 옛 성인은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몸은 물론 마음까지 된통 알고 난 뒤에야 겨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다가 절집에 산 적잖은 헛수가 슬그머니 멋쩍어졌습니다. 앓는 동안 오히려 제 가슴 속을 오간 건 어머니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 심하게 감기로 세 번이나 하며 몸져누워 있을 때 저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주말에 절에 기도하려 가는 양 하며 나온 출가한 날…….

그런 줄도 모르고 따뜻한 새 밥 안 지어주고 있던 밥을 먹여 보내 그것이 평생 한恨이 된다는 나의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의 어머니……. 지금도 가끔씩 눈물지으며 출가한 달의 그 길이 평탄하기를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져 옵니다.

冬 물끄러미 자신의 안뜰을 들여다보기 좋은 날들입니다.

바람 없는 깃발은 펄럭이지 않습니다. 바람 없는 갈대와 억새는 기음을 울지 않습니다. 바람 없는 대숲은 풍죽風竹을 만들지 않고, 바람 없는 강물은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람은 꽃을 피우고 일을 떨구되 지취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나지 않되 빛내 주는 자입니다.

녀도 나도 내가 빛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안팎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저도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감고 손을 들어 바람을 한번 느껴보아야겠습니다.

저자인 스님과는 행자 교육에서 문화재 강의를 하실 때가 첫 만남이었고, 우연찮은 기회로 스님의 사인이 든 책을 인연 있는 보살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늘 결에 두고 있다. 한가로이 한 권을 읽어도 좋고 번갈 할 때 한시를 나지막히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 기라앉히기도 하고 스님의 간간한 필체를 감상하는 재미도 솔솔한 「맑은 바람 드는 집」. 산중에 사니까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일은 늘고 마음밭엔 잡초만 수북하여 소란스러움 속에 날이 지고 밤이 새니 그렇다고 시원스레 답은 못하고 열없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스님의 생활과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 지금이다.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답은 일 줄이고 마음 맑혀 고요히 살 것…….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피는 이 봄날에 모든 것이 밖으로만 향하는 요즈음 매화차 한 잔 달여 놓고 어떤 일을 줄이며 어떻게 마음 맑혀 고요히 살 것인가를 고민해볼 일입니다. ☺

봄빛 닮은 배려심 갖기

사람들은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고 믿고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칼을 들고 휘둘러야만 상처를 내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몇 센티에 불과한 혀와 나의 생각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둘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다만 윗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먼저 일을 배워 잘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이는 나를 잊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행동한 소치이다. 마음이든 환경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물이다. 이 좋은 날에 나의 좋은 공부터로서의 배려심을 키워 보고 마음에 거듭 새겨둘 일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마다 만나는 사계절이
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느낌과 새로운 계획으로 각각의 계절을 맞이한다. 그 가운데 봄이 시작될 때는 어느 곳이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어떤 인연이 기다릴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이때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마 서로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고, 새로운 인연들에 소극적이 되며,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다. 한다고 해도 상중하좌上中下座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질책과 걱정들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힘겹게 한다. 자연히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짜증, 신경질이 발동될 때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은 왜 못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에 짜증이 나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이기에 못하는데 계속되는 질책에 짜증이 난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동묘지에 가서 왜 죽었는지를 물으면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 그렇듯 개개인의 상황을 들어보면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 개개인의 상황들이 한데 맞물려 가야 하니 폐격대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이유와 입장이 있고 더불어 각자의 입장까지 뒤따르다 보니 나와 너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법문을 배우고는 있지만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절집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몸이 힘들어지고 나의 여유심이 줄어들 때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나의 업식들과 습기들이 하자는 대로 상대방에게 비난과 질책의 막말을 하고 있지는 않

온가? 또한 내가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도 되는 일이고 남이 할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라는 틀 속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다.

사람들은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고 믿고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칼을 들고 휘둘려야만 상처를 내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몇 센티에 불과한 혀와 나의 생각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다만 웃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먼저 일을 배워 잘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진여본성을 밝히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누구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일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실수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울챙이 적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단지 이생에서의 일일 뿐이다.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상처 줄 권리란 누구에게도 없다. 전생차생 따져 어느 누가 나이의, 법률의, 지식의 고하를 따질 수 있겠는가….

나를 통해 보이는 모든 인연들은 어느 생에서는 나의 선배가,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생에서의 인연으로만 단정지어 세 치 혀와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면 어느 생에서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몇 시간씩 일하는 나의 동료와 도반들은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겠는가? 지금 내 눈앞의 인연들이 어느 생에 나와 어떠한 인연의 고리로 만났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인연의 고리가 꼭 좋은 인연만 있을 수는 없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인연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좋은 나쁘든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 푸는 것도 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든 나는 잊어버린다. 나를 잊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밖으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많은 화살을 보낸다. 만약 내가 나의 감정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먼저 생긴다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철저히 자기수행이며 실천수행이다. 수많은 경전의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화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실천을 못 한다면 그것은 먹물 옷을 입은 허수아비일 뿐 수행자라 할 수 없다. 각각의 인연에 따라오는 경계와 수많은 일들에 대해 나의 감정들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자세를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나의 좋은 공부터로 삼는 배려심을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이든 환경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봄이다. 만약 새롭게 만나는 좋은, 좋지 않은 인연들, 어색한 환경, 많은 일들에 지쳐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며 저 푸르디푸른 창공에 나의 속상함을 마음껏 쏟아내 보자. 그리고 한번 살며시 물어보자. “내가 그대에게 그은 한 획을 허공! 그대는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대답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다. ☺

운문소식



▲ 새학기 맞이 신종기도



▲ 자비의 이웃돕기 탁발



▲ 동화사 법화산림대법회 일진 주지스님 법문



▲ 대중 징군바위 산행



▲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 2월 28일~3월 15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44회 행자교육원에 일진 주지스님께서 교수사, 운영위원으로 대학원 현주스님께서 습의사로 다녀오셨습니다.
- 3월 14일
- 3월 14일~16일 봄철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대학원생스님 4명, 사미나파 31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산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산불예방 소금물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6일
- 3월 21일 연례행사인 대교반 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경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은 10,984,200원으로 안근지역 학교의 장학금, 군법당 급식비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같은 날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25일~4월 2일 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전계사 명성 회주스님, 중사 흥룡 학장스님, 교수·갈마사 일진 주지스님, 습의사로 현주 스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운문사 49회 출업생 36명이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6일 동화사에서 열린 법화산림대법회에 일진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다녀오셨습니다.
교무스님, 대학원생 스님들과 회암반스님들이 범어사 수록제에 다녀왔습니다.
- 3월 29일 화엄반스님들이 경주동국대 호스피스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서예, 요가와 전수업을 시작했습니다.
- 4월 8일 대중스님들이 장군바위로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9일~12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21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대교반스님 5명, 사교반스님 29명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쳐진 소나무 막걸리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3일 이성복 영가 49재가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주스님 법문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0일 제7회 청도 유등제에 일진 주지스님과 대교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21일 대자원법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6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8일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 건축된 후원 안락볼공이 있었습니다.
- 5월 6일 29일간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영덕 스님 • 덕재 스님 • 동우 스님 • 미가 스님 • 나경 스님 • 지단 스님 • 최운석
• 최경아 • 윤용숙 • 이기태 • 박대용 • 이복자 • 구신희 • 조창래 • 장정자
• 수산화 • 김미형 • 배호암 • 이점석 • 이정숙 • 이병석 • 전구자 • 임 광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나
신청을 원하시는 재가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권 124호, 봄호, “愛語…달”

때 아닌 4월의 힘박눈과 꽃샘추위의 짓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긋이 웃음짓는 불꽃들…… 한없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사람의 일 역시 그러하겠지요. 나에게 닥친 시련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방긋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고되고 힘들었던 짧은 물철이었지만 손에 놓여진 124호 운문지를 보니 그동안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보이시나요? 저의 힘박웃이아…… ^ 선선한 춘풍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꽃비, 그 곁에 살포시 다가오는 춘곤증……. 깜빡 놓치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이때, 옆에 있는 도반과 차 한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映祚

활짝 핀 도화꽃을 비춰주는 초승달…….
보름달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너무 꽉 차지도 않고, 아예 없지도 않은 초승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날이 갈수록 채워지는 달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름달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한철 한철 나오는 운문지를 보면 마음이 뿌듯함과 설렘으로 가득 합니다. — 摯憬



신중탱화, 그림 보인 / 시교과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효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산사의 별」 코너가 123(겨울)호를 마지막으로 마감했습니다. 더욱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나와 남의 차별이 끊어지면
공부하지 않아도 도는 저절로 높아지네.
자기 를 능히 낮출 줄 아는 이에게
모든 복덩이는 저절로 흘러오리.

- 야운조사 野雲祖師 -

靈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灵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 · 통권 제124호 · 2013년 4월 3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영조 / 편집위원 · 나경, 해운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영조(모자 위에 내린 꽃별) / 삽화 · 능과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